

라파스의 출리타: 아이마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김인아

볼리비아의 라파스는 해발 3,600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행정 수도이다.¹⁾ 저발전과 가난으로 알려진 국가에 속한, 외부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였던 라파스가 최근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한 듯하다. 지난 해 세계 7대 도시로 선정되었던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²⁾ 라파스가 주목받게 된 데는 물론 도시를 가득 채운 수많은 명소들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라파스에서 거주했던 필자에게 이 도시의 매력을 묻는다면 단연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사라도 말하고 싶다. 라파스는 안데스의 고단한 역사를 온전히 견뎌낸 곳이며,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는 식민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필자는 출리타(cholita)라고 부르는 아이마라 여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라파스의 역사에서 이 아이마라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현재의 라파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특히 필자는 2013년 10월에 통과된 라파스 시정부의 법에 주목할 것이다. 출리타 파세냐(cholita paceña. ‘라파스의 출리타’라는 뜻이다.)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 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는 출리타, 더 나아가 최근 볼리비

1) 볼리비아의 헌법 상 수도는 수크레이다. 그러나 라파스에는 수크레보다 많은 중앙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2) 2014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베이루트, 도하, 더반, 아바나, 칼라룸푸르, 비간, 라파스를 세계 7대 도시로 선정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2011년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며 국내에 알려진 바 있다.

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과거, 출리타의 기품

라파스에서 출라(chola) 또는 애칭으로 출리타(cholita)는 주로 아이마라 여성을 일컫는다.³⁾ 스페인왕립학술원의 정의에 따르면 출라는 ‘유럽계와 원



2015년 출리타 파세냐 선발대회 우승자 유마 타타쿠.(출처: <http://lapaz.metro-blog.com>)

주민계의 혼혈인’을 의미한다. 용어의 기원은 식민시대로 거슬러 간다. 볼리비아 작가인 이사벨 벨라스코(Isabel Velasco)의 『아, 알론소 씨』(Oh Don Alonso)에 따르면 출라는 마드리드의 여성을 일컫는 출라(chula)라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오며 메스티소⁴⁾ 여성이나 그 외의 혼혈 여성을 지칭하게 되었다. 1900년대 초반 라파스의 일상생활을 다룬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출리타 파세냐(cholita paceña)의⁵⁾ 묘사에 할애되어 있다. 이는 당시 소설, 시, 쿠에카(전통노래), 그림 등 라파스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번성에 영감을 주었던 뮤즈가 바로 출리타였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식민 시대에도 출리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벨라스코의 묘사를 인용해 보자.

강건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출리타는 매끄럽고 약간 도톰한 고급스럽고 비싼 벨벳 원단으로 만든 밝은 색상의 폭이 넓은 포예라(pollera, 안테

3) 스페인어에서는 단어의 끝에 작다는 의미의 -ito, -ita 접미사를 붙여 애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안데스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관례이다.

4)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유럽계와 원주민계의 혼혈인을 일반적으로 메스티소라고 부른다.

5) 식민 시대 출리타는 상업이나 도매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던 원주민 여성이나 혼혈 여성을 지칭하기도 했다.

스의 전통 치마)를 입었다. 치마 쪽에는 알페르사(alferza) 방식으로 서너 번 주름을 접어 넣는다. 허리에는 긴 끈을 고리모양으로 달아 체형에 맞게 조일 수 있다. 포예라 안에 두 겹의 치마를 입거나 오건디 원단의 뽀뽀하게 풀 먹인 고급 속치마를 입어 볼륨감과 생동감을 준다. 포예라는 발목 바로 아래까지 내려온다. 주로 흰 색 실크 스타킹을 신고, 정강이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긴 부츠를 신었다. 루이힐 스타일의 높은 굽 부츠는 여러 개의 구멍을 내어 단추와 끈을 끼우고 끝 부분은 작은 수술로 장식했다.



19세기 출리타

(출처: <http://www.cholitapacena.com>)

여기에 마티네(matinée)라고 불리는 우아한 상의를 걸쳤는데, 이는 꽃무늬 자수를 놓은 명주천으로 된 탐보르(tambor) 스타일의 블라우스이다. 블라우스는 가슴 부분에 주름이 장식되어 있고, 긴 소매는 종 모양으로 부풀렸으며, 레이스로 장식을 추가하고, 앞에서 브로치 등으로 여밀 수 있게 처리되어 있다. 상의에 지느러미 모양의 조각을 덧대어 포예라 위에 내어 입고 허리 부분을 몸에 밀착되게 조였다. 상의의 목부분은 넓게 잔주름을 낸 레이스로 처리한다.

당시 여성들의 유행에 맞춰 등을 덮을 수 있는 중국산 명주천으로 만든 아름다운 솔을 들렀고, 여기에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문양의 수를 놓았다. 그리고 섬세하게 세공한 진주나 귀금속이 줄줄이 달린 금핀이나 은핀을 앞에 꽂았다.

우아한 차림은 성인의 그림 등을 넣은 펜던트가 달린 가는 목걸이로 완성되었다. 세 가닥으로 꼬아 짠 두 갈래의 검고 윤이 나는 머리를 화려한 색상의 넓은 끈으로 묶어 등에 늘어뜨렸다.

이런 옷차림으로 출리타는 일반인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출리타 가운데 상당수는 보모, 요리사, 가정부, 하녀로 일했지만, 옷차림은 식민시대 스페인 여성의 유행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 가정의 지위와 신분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고용주 가정의 특정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렇게 출리타의 패션 스타일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출리타는 과거를 상기시키는 존재이며, 그 의상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도 든다. 출리타는 라파스의 역사와 근대화 과정의 일부였고, 도시의 변함없는 상징인 것이다.

근대화와 출리타에 대한 차별

지난 수년 간 출리타에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일자리나 의상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대중의 인식이었다. 출리타는 단순히 혼혈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필자가 라파스에 거주하던 1990년대 부터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용어는 점차 모욕적인 어감을 갖게 되었다. 출리타를 옷차림이나 외양으로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이 용어는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품위가 없는 이들을 차별하기 위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식민시대나 19세기 초반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출리타 대부분은 가정부, 거리의 잡상인, 공예품 생산자 또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출리타가 대학 교육을 받거나 교사, 간호사, 사업가로 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포예라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머리를 땅지 않는 한은 말이다. 여기에는 여성이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려면 바지를 입거나 현대적 의상을 착용해야 한다는 통념도 한 몫을 했다. 출리타가 포예라를 입고 외국 회사와 거래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로 여겨졌다. 볼리비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말이다. 부대통령을 역임했던 우고 카르테나스의 아내인 리디아 카타리도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유사한 차별을 겪었다. 학교 측은 리디아에게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리디아는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수년 간 출리타는 의상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야 했다.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잡기 위

해 수많은 이들은 아이마라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다. 만일 차별에 대항한다면 그들은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 일터를 떠나야 했다.

그렇지만 지난 수 년 간 차별에 저항하는 출리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출리타가 정치계, 패션산업, 언론계에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최초의 아이마라 출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의 집권과 무관하지 않다.



새로운 시대의 등장: 2005년 이후의 출리타

2005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볼리비아는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출리타 여성들이 장관직과 주요 공직에 임명된 것도 이 중 하나이다. 단적으로 주 에콰도르 볼리비아 대사는 여성이며, 그녀는 자랑스럽게 포예라를 입는다. 출리타가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제 사람들은 옷차림과 외모로 출리타를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대신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다. 한 때 출리타는 소외되어 있었지만 이제 사회의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은 볼리비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13년 라파스 시정부의 새로운 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출리타가 해당 지방 정부의 중요한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지난한 투쟁을 벌여왔던 출리타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제 라파스의 변화에서

출리타의 주도적 역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와 의학 부문을 살펴 보자.

안데스 유행의 선두에 서다

출리타의 삶, 의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운 ‘출리타스(cholitas)’라는 잡지가 2014년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독일 출판사인 패치월드와 편집자 에스터 케임(Ester Chaysm)의 역할이 컸다. 처음으로 출리타가 세상에 발언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잡지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에도 배포된다. 아직도 볼리비아에 팽배한 시각과는 달리 케임은 출리타의 매력과 독특함에 주목한다. 심지어 케임은 출리타를 ‘공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출리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순전히 아이마라 여성만을 담는 잡지의 발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잡지 표지를 장식한 출리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신선한 경험이다. 아름다움과 미학을 평균적으로 재단할 그 어떤 기준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이러한 변화는 아이마라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 전통,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변화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전반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출리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난 기나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패션잡지 「출리타스」 창간호 표지

뜨개질하는 아이마라 여성, 그리고 의학적 혁신

출리타가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또 다른 사례로 의학 기술과 혁신 부문에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심장병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헤스



동맥개존증 치료 도구인 니트어클루드(Nit-Occlud)를 제작하는 아이마라 여성(출처: <http://www.bbc.com/news/health-32076070>)

(Alexandra Heath)는 심장 질환에 시달리는 젊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최근 의료 기술 발전에서 아이마라 여성의 역할을 설명하며, 이는 다른 아난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라파스의 높은 고도로 인해 수많은 아이가 심장천공 등의 결함을 지니고 태어난다. 구멍을 메우기 위한 장비는 구비되어 있지만, 문제는 유아와 소아의 소형 장기에 적합한 맞춤형 장비 수입에 드는 비용이었다. 이런 이유로 헤스와 남편이자 역시 저명한 심장 전문의인 프란츠 프로이텐탈은 니트어클루드(Nit-Occlud)를 고안해냈다. 전통적으로 실뜨기에 능숙한 아이마라 여성을 동원하여 마치 공예품이나 모자처럼 어클루드의 와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출리타는 오랜 시간 행상인 등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이토록 혁신적인 의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외부인의 통념과는 달리 헤스는 의료진과 아이마라 여성의 협력이 완벽한 조합이라고 평가한다. 볼리비아는 생존을 위해 기술을 연마해온 혁신가와 예술가의 나라이다. 이들은 수 세기에 걸쳐 온갖 역경을 견뎌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여성은 심장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이기도 하다. 다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취이기도 하다. 특이할

점은 니트어클루드가 출리타의 전통적인 모자 형태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출리타의 생존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글을 마치며

출라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매우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라파스의 출리타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진출해 고정 관념과 편견을 깨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용어를 특징짓던 경멸적인 어감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외국 매체는 매혹, 아름다움, 혁신가, 생존자 등의 어휘로 출리타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의 시각은 아직도 변화가 필요하다. 출리타가 잡지 표지나 광고판을 채우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볼리비아인은 이러한 변화를 그다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출리타의 잠재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라파스라는 도시가 생겨난 이래로 출리타는 도시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해왔고, 그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과거와 달리 출라라는 더 이상 외부인에 의해 위치를 규정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모습을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때 출리타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였다. 그리고 이제 출리타 스스로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가는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로 변모하고 있다. 출리타 존재 자체가 라파스라는 도시의 가치와 동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강정원 옮김]

김인아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

강정원 —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